2021지구촌교회 글로벌 셀 컨퍼런스로부터 배운 점

소감문

2021.6.1

소속 : 일본 기독교단 원로 목사

이름 : 오부치 코우지

이번에 니이가타 지구촌교회의 후의로 일본인 크리스천인 저희들도 셀 컨퍼런스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.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

중요한 것들이 많이 제 마음 깊이 스며 들었습니다만, 그 중에 특히 2가지를 적고자 합니다.

첫째는, 현대인은 고독하며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셀 교회 안에서 그 공허감과 고독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<나는 외롭다. 고독하다>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만, 하나님 만이, 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, 적은 인원의 신뢰할 수 있는 그룹안에서 치유 해 주시는 것입니다.

둘째로, 셀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위로를 받은 것 입니다.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받고,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물론, 그러기 위해선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만,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.

끝으로, 실제로 셀 교회의 현장을 보고 경험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. 자매들이 마음을 열고, 서로 들어주고, 함께 기도하,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, 위안으로 꽉 차인 모습이었습니다.